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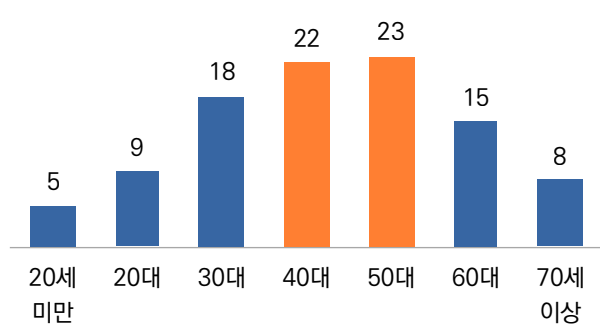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3명꼴(28%), 주식 투자 중!

- 202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 주식 소유자 수는 1,44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5112만 명)의 약 28% 수준으로,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개인 주식 소유자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23%)와 40대(2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식 시장의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었다. 20세 미만(5%)과 70세 이상(8%)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소유자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제 주식 투자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개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5.12월 기준)



[그림] 개인 주식 소유자 연령별 분포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6.03.18.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안부), 2025년 12월 기준

개인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 1위,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남성'!

- 거주지·성별·연령대별 개인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47,178주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거주하는 50대였다. 전체적으로 상위 5개에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성남', '50~60대 남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표] 거주지·성별·연령대별 개인 소유 주식 수 top.5

시·도	시·군·구	성별	연령	소유자 수 (명)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자	60대	20,944	47,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자	50대	35,876	41,422
경기도	성남시	남자	60대	24,671	27,4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자	50대	24,877	26,034
경기도	성남시	남자	50대	37,050	15,102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6.03.18.